

STAR CRAFT

HEART OF THE SWARM



BILZARD
ENTERTAINMENT

탈출

대니 매컬러스

"저 소리 들었어? 놈들이 외벽 안까지 들어왔어."

거센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지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금속성 폭발음이 들렸다. 탁자에 둘러 앉은 네 남자는 서로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추위를 피해서였다.

"정말 그럴까요?" 프레스콧이 물었다. 불안한 기색을 감출 생각도 없었다. "그러니까... 외벽은 정말 두껍다고요. 제 생각에는..."

"닥쳐." 개릭이 다음 카드를 뒤집으며 투명스럽게 말했다. "널 놀리는 거잖아." 일행을 의미심장한 눈길로 둘러보던 그의 얼굴에 능글맞은 미소가 번졌다. "아니, 놀리는 건가?"

찬 생각에는, 모두들 프레스콧을 놀리고 있었다. 그걸 즐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보는 건, 지난 3일간 있었던 그 어떤 일보다, 특히 이 카드 게임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외벽 안으로 들어왔으면 다 끝장이야." 코트가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놈들이 동력선을 씹어먹으면, 우린 이 쥐구멍 속에서 얼어 죽겠지."

개릭이 다른 카드를 집어 들었다. "아냐. 우리가 얼어 죽기 전에 여기 도착할 걸. 반경 20 킬로미터 내에 따뜻한 거라고는 우리뿐이니까. 그 벌레들은 우선 여기로 올 거야. 그러면 뭐, 끝이지."

다른 건 몰라도, 무시무시한 추위 하나만큼은 늙은 해병의 말이 맞았다. 가열로는 6 시간 전에 꺼져버렸고, 낡은 병커에 수북이 쌓인 물품 중에도 연료는 없었다. 이제 온기를 내뿜는 것은 바닥에 깔린 지열 전달관 뿐이었지만, 가혹한 추위를 견뎌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아직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거예요." 프레스콧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말했다. "그렇다면 그 유령이 먼저 봤을 테고, 이미 우리에게 연락해서 지금쯤 모두 여길 떠났을 거예요."

두 번째 패가 돌아왔다. 코트가 판돈을 쓸어갔다. 와서 큰 것 6 개, 작은 것 10 개, 그리고 깨진 도미노 몇 개. 어제까지는 식사와 따뜻한 샤워를 걸고 게임을 했지만, 지금은 앞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찬은 도미노 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도미노로 종목이라도 바꿔보면 기분은 조금 나아질 테니까.

"아마.. 그 사람 소리였을 거예요." 프레스콧이 희망에 차 이야기했다. "돌아오려는 건지도 몰라요."

"죽었는지도 모르지." 코트가 받아치자 젊은 해병은 입을 다물었다. 어색한 침묵이 뒤를 이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설불리 밖으로 꺼내놓지는 못하던 참이었다.

"그... 그러니까 제 생각엔-"

"네 생각 따위는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아." 개릭이 말을 잘랐다. "구조선은 안 와. 특수부대가 떠나버렸으니, 이제 남은 건 우리뿐이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

찬은 아마 맞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다. 명령은 간단했다. 저그를 목격할 때까지 버려진 시설 내에 잠복할 것. 저그가 목격되면 분대에 배치된 유령이 정확한 폭격 지점을 보고하고, 구조선을 요청할 것.

쉽게 말하면, 그들은 미끼였다.

찬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걸 그의 첫 임무였다. 첫 번째 출동이였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낙오하거나 명령에 불복할 생각이 없었다.

유일한 문제는 그 유령이었다. 이미 26 시간 전에 교신은 끊겼고, 임무 수행 중 그 유령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저 낡아빠진 무전기 너머에서 지직거리는 목소리였을 뿐이었고,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 섬뜩한 침묵으로 찾아들었다.

더 끔찍한 건, 구조선 호출 암호를 알고 있는 게 그 유령뿐이라는 사실이었다.

"다시 걸어 보세요." 찬이 개릭에게 말했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열어 두시고요."

"내가 안 해본 것 같아?" 개릭이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잡음뿐이야."

"그러면 그 자식한테 가봐야겠네요." 찬이 담담하게 내뱉었다. "확인해야죠."

코트가 개릭을 보며 아무 말없이 동의했다. 찬은 두 해병의 오랜 경험을 존중했다. 두 사람이 지금껏 파견되었던 장소와 수행한 작전들, 찬은 언젠가 직접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만을 바랐다. 군에 지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한 명만 간다." 코트가 마치 지휘관처럼 침묵을 깨며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진짜 지휘관은 아니었다.

지휘관은 없었다... 상병이 실종된 순간부터.

프레스콧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우리 중에서 한 명만요?"

개릭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체리 말이 맞아. 움직일 시간이야."

"누가-

"게임으로 정하지." 개릭이 카드를 모으며 말했다.

이 시설은 거대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큰 편이었다. 유령은 남쪽 탑에 숨어 외곽 지역을 감시하기로 했었다. 그곳까지 가려면 어둡고 넓은, 정말 끔찍하게 추운 공터를 가로질러야 했다.

찬은 덩치가 커다란 해병이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의 여가를 책임진 꼬깃꼬깃한 카드를 섞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커다란 손, 흥터로 뒤덮인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기민하게 움직이며 카드를 돌렸다.

"낮은 패가 간다." 나이 든 해병이 단언하듯 말했다. "죽는 것도, 3 판 2 승제라고 우기는 것도 없어.

갔다 돌아온다. 그리고 그 후에 뭘 할지 생각한다. 알았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프레스콧이 마지막이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찬은 모두가 카드를 집어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 패를 들어올렸다.

퀸 두 장. 높다. 아주 높은 패다.

"세 장." 찬은 나머지 카드는 탁자 위에 얹어 놓은 채, 카드 세 장을 내밀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카드를 세 장씩 바꿨지만, 프레스콧은 예외였다. 젊은 해병은 잠시 망설인 끝에, 카드 한 장만을 바꿨다.

"한 장뿐이야?" 개릭이 물었다. 프레스콧이 미안해 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개릭은 어깨를 으쓱 하고는 나머지 패를 돌렸다. 모두들 자기 카드를 집어 들었다.

"너부터 해." 코트가 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침을 뱉었다.

찬은 아무 말 없이 퀸 세 장을 내려놓았다. 개릭이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젠장, 운 좋은 놈이군. 너는 안 가겠네."

"나도 안 가." 코트가 잭 두 장을 뒤집어 보이며 말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리가 얼어서 끊어질 것 같았거든."

모두가 개릭을 바라보았다. 개릭은 일부러 땀을 잔뜩 들인 후 말했다. "9 페어." 그리고 차가운 금속 탁자 위에 카드를 펼쳤다.

이제 프레스콧 차례였다. 그는 불편한 듯 몸을 비비 꼬며, 마치 패를 바꾸고 싶기라도 한 듯이 자신의 패와 다른 사람들의 카드를 번갈아 바라봤다. 하지만 결국, 머뭇거리며 카드를 모두의 눈 앞에 내려놓아야 했다.

"짱이잖아." 코트가 프레스콧의 패를 보며 말했다. "에이스 하이."

개릭이 프레스콧의 카드를 집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도대체 뭘 기다린 거야? 스트레이트라도 노렸어?" 그는 두툼한 손가락으로 젊은 병사의 카드를 이리저리 훑어 놓았다. "우리 카드에는 처음부터 킹이 없었다는 거 몰랐냐? 멍청한 놈."

프레스콧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깨가 축 쳐진 채, 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손가락을 쭉 펴고 손바닥을 내보이며, 그는 무력하게 팔을 들어 올리고 허망하게 패배를 시인했다.

"자, 가서 짐이나 싸." 개릭이 카드에 손을 뺐으며 말했다. "탑까지 가려면-"

갑자기 찬이 개릭의 손목을 붙잡고는 말했다. "잠깐."

개릭은 짜증을 내며 어디 다치기라도 한 듯 팔을 움츠렸다. 찬은 개릭의 팔을 놓아주며, 그의 앞에 놓인 카드를 턱으로 가리켰다. "다이아몬드 9 가 두 장 있는데요."

모두의 눈이 개릭의 패를 향했다. 사실이였다.

코트가 웃음을 터트렸다. "야 임마! 저 카드는 어디서 구했어? 지금까지 너랑 수도 없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래도 네가 내기는 정정당당하게 하는 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는 웃음을 멈추지 못한 채, 문제의 카드를 향해 손을 뻗었다. 다른 카드 한 벌에서 꺼낸 것으로 보이는 그 카드는 뒷면의 색도 전혀 달랐다.

"닥쳐!" 개릭은 쏘아붙였다. 독기 서린 목소리였다. 찬을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는 말을 이었다.

"꼬마 체리 녀석은 권을 세 장이나 받았군. 귀엽기도 하지. 평생 여왕이라고는 이 아가씨들만 만나
봤겠지."

개릭이 벌떡 일어나자 2 미터 가까운 몸집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는 발을 들어 전투화 채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찢어진 각반을 무릎까지 걷어 올렸다. 종아리 근육의 절반을 차지한, 흉측하고 들쭉날쭉한
흉터가 드러났다.

"보이나?" 상처를 가리키며 개릭이 말했다. "저그 여왕이 내 다리를 반쯤 뜯어먹었어. 다이나레스
구역이었지. 그 날 800 명이 죽었고, 그 다음 날에는 600 명이 죽었다."

모두가 일어섰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프레스콧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코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개릭이 지저분한 검은 머리채를 거칠게 넘기며 말했다. "총탄이 내 두개골에 구멍을
냈어." 그는 상처 부위를 따라 손가락을 외설적으로 움직였다. "아군의 오인 사격이었다고. 끝내주는
날이었지."

찬은 꼼짝 않고 서 있었지만, 프레스콧은 뒷걸음질을 치려고 했다. 개릭은 프레스콧의 어깨를 붙잡고,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바짝 끌어당겼다. 젊은 병사의 코를 물어뜯을 듯 가까이 다가간 그는, 누런 이빨을
맹수처럼 드러내며 으르렁댔다.

"그래도 네가 가는 거야." 개릭이 프레스콧에게 말했다. "달라지는 건 없어. 나는 내 몫을 다 했어. 청춘을
쏟았다고. 이따위 짓을 하기엔 너무 늙었어. 이젠 네 차례야."

개릭이 서서히 손을 놓았다. 프레스콧은 낙담한 모습으로 의자에 털썩 쓰러져내렸다. 당분간 아무데도
가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

"제가 가죠." 찬이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무척이나 낯설었다.

코트는 마치 찬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봤다. "네가 가겠다고? 정말이야?"

"아마도요." 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설득하는 것 같았다. "여기 앉아있는 게 지겨워요. 끝장을 봐야죠."

전투복은 낡기도 낡았지만 엄청나게 무거웠다. 가슴보호구는 병커의 무기고에서, 다리보호구는 밀폐문 밖의 사물함에서 찾은 물건이었다. 원시적이라고 할 만큼 낡고, 전력으로 구동되는 방식이 아니라 끈으로 묶은 형태였다. 방어구는 찬의 피부에 얼음처럼 차갑게 들러붙었지만, 그래도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었다.

장화와 장갑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헬멧도 없이 떠날 지경이었지만, 다행히 "여기,"라는 말과 함께 코트가 보안경이 빠진 헬멧을 던져 주었다. "용감한 건 좋지만, 멍청하면 안 되지." 이 말만 남기고 코트는 차양 아래를 지나 시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병커 바깥은 바람이 지배했다. 찬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몸을 잔뜩 기울였다. 남은 두 사람은 부서지다가 남은 차양 아래 모여 서서, 다시 안으로 들어갈 때만 기다렸다.

"남쪽 탑은 저쪽이에요." 프레스콧이 한쪽을 가리키며 바람 소리에 맞서 고함을 쳤다. 그는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기계실을 끼고 돌아서 세 번째 차고를 지나 가세요. 외벽에 도착하면, 왼쪽으로 돌아서 끝까지 가시면 돼요."

찬이 고개를 끄덕였다. 개릭은 가우스 소총을 건네주며 찬의 어깨를 강하게 두들겼다. 하마터면 넘어질 지경이었다. "행운을 비네."

"제가 출발한 다음에 문 봉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찬이 일렀다.

개릭이 히죽 웃었다. 손에는 이미 플라즈마 가열기가 들려 있었다. "그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동료들이 사라졌다. 휘몰아치는 바람을 향해 돌아선 찬은, 하필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균형을 잡으며, 그는 한 걸음씩 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기계실까지 가려면 넓고 텅 빈 공터를 가로질러야 했다. 여기가 가장 끔찍했다.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없어서 바람이 두 배 정도 세게, 다섯 배 정도 차갑게 몰려들었다. 바람은 마치 액체처럼 그의 몸을 휘감으며, 노출된 얼굴을 타고 목을 따라 흘러내려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찬은 끔찍한 바람을 피해 손으로 눈을 가리던 그 모습 그대로 얼어붙어, 마치 비딱하게 경례하는 모습 같았다.

그래도 그는 계속 움직였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얼음장처럼 매끈한 공터 중앙에 도착한 찬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지옥의 경계에 선 것 같았다. 뒤쪽으로는 낮게 펼쳐진 벙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고, 앞쪽의 기계실은 아직도 수 킬로미터는 떨어진 것 같았다. 발 아래에는 검은색 얼음뿐이었으며, 그 아래 더 깊은 곳에 얼어붙은 아스팔트가 있었다.

찬은 AGR-14 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고 계속 걸었다. 공터를 가로지르는 데는 10 분 정도 걸렸으며, 기계실에 도달하는 데는 다시 2 분에서 3 분 정도 더 걸렸다. 그리고 벙커에서 프레스콧이 알려준 차고들을 따라 걸어가던 중, 두 번째 차고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바람이 들이지지 않는 문간에서라도 잠시 쉬며 손발을 녹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이곳은 마침 무척 괜찮은 피난처였다. 찬은 비틀거리며 바람에서 벗어나, 어두컴컴한 차고 입구로 들어갔다. 바람의 힘이 사라지자 몸을 죽 펼 수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기지가 바쁘게 돌아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며, 찬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시설을 가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다. 사람들은 기계를 작동시키고, 방어 시설을 가동하고, 시설을 유지했다. 병영에서 잠을 자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농작물을 키우고, 발전기를 돌렸다.

하지만 모두 저그가 오기 전의 일이었다. 군단이 모든 것을 망쳐놓기 전이었다. 찬이 얼어붙은 손을 녹이고 있자니,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차고 한쪽 구석에서... 뭔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달빛이 사라진 어둠에 눈이 익어가자, 자세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형체 주위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바람에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정체를 파악했을 때, 찬은 이미 무기를 조준하고 사격을 시작한 후였다.

가우스 소총의 총열에서 초당 30 번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빛이 뿜어져 나와 차고를 환하게 밝혔다. 새된 비명을 지른 저글링은 피와 뼈를 흩뿌리며 폭발했다. 찬은 저글링의 몸이 어둠 속에서 섬광등처럼 춤추며, 관통 소총에 맞아 말 그대로 조각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사격을 계속했다.

저그다. 벌써 여기까지. 갑작스러운 전투에 몸이 달아올랐지만, 찬은 등골이 서늘했다. 가우스 소총은 따스하게 손에 착 달라붙었다. 묵직하고 살아 있는 느낌이었다. 마치 찬에게 방아쇠를 당겨달라고

애원하는 것만 같았다. 소총은 찬을 유혹했다. 아니, 그의 몸이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다시 덮히고 싶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찬은 소총의 조명을 켜고 적의 잔해를 비쳤다. 산산조각난 사체가 차고에 흩뿌려져 있었다. 피, 점액, 그리고 오직 신만이 그 정체를 알 수 있을 물질이 사방에 흩어진 상태였다.

해병은 흩어진 저글링의 사체를 쿡쿡 찌러보며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저글링은 깜짝 놀랄 만큼 작았고, 무해한 생물처럼 보였다. 찬은 이렇게 작은 생물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사건들을 끝도 없이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 순간, 다른 저글링 두 마리가 뒤쪽에서 찬을 덮쳤다.

역설적이게도, 놈들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찬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저글링과 충돌한 충격 때문에 찬은 앞으로 나뒹굴었고, 가우스 소총도 놓쳤다. 달려오던 저글링들은 찬을 지나쳐 계속해서 미끄러져갔다. 놈들의 발톱과 칼날이 매끈한 바닥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둘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뒤쪽 벽에 충돌했다.

벌떡 일어난 찬은 먼저 충돌한 저글링이 얼어붙은 바닥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버둥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날개 하나가 찢어져 이상한 각도로 덜렁거리고 있었다. 찬은 뭔가에 홀린 듯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일어나려고 애쓰는 저글링의 광기 어린 눈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눈은 어둠 속에서 마치 달아오른 숯처럼 주황색으로 빛났다.

다른 저글링은 이미 기운을 차리고 찬을 향해 돌진했다. 미처 총을 향해 손을 뻗을 새도 없었다. 찬은 총을 쏘는 대신, 그 곤충의 마디진 가슴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발로 힘껏 찼다. 다행히 시간을 딱 맞춰,

발은 공중에 날아오른 저글링에게 적중했다. 삐죽삐죽하게 날이 선 낫과 같은 저글링의 두 앞발이, 그의 머리를 예리하게 베어버리기 직전이었다.

해병은 소총을 향해 몸을 날렸고 저글링은 균형을 되찾았다. 저글링이 검은 파편 무더기 뒤로 몸을 날림과 동시에, 찬은 관통 소총을 휘두르며 조준도 하지 않은 채 점사로 총을 두 번 발사했다. 찬은 파편 더미를 향해 총을 쏘고 또 쏘았다. 총탄에 맞아 먼지와 연기, 금속 조각이 날아올랐다.

퍼뜩 다른 저글링 생각이 들었다. 오른쪽으로 빙글 돌아서자, 끔찍하게도 앞서의 저글링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차고에서 천천히 물러나며, 찬은 숨길 수 없는 그 오렌지색 눈을 찾았다. 연기가 자욱한 어둠 속에서도, 그 눈만 찾으면 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배웠었다.

찬이 밖으로 나서는 순간, 매서운 바람이 그를 강타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환한 달빛이 사방에 쏟아져 내려, 차고 안의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찬은 잠시 차고 문을 향해 총을 난사하며, 도망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었다. 총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뒷걸음치면서, 그는 미친 듯이 도망칠 곳을 찾았다.

그가 시선을 아래로 돌린 것은 단 한 순간이었다. 소총의 탄창에서 60 이라는 숫자가 번쩍였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자, 저글링은 이미 문을 통과하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턱뼈로 그의 팔 위쪽을 한 움큼 베어내고 있었다. 찬이 그 모습을 보기도 전에 고통이 먼저 찾아왔다.

찬은 총을 난사하며 총구를 저글링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59 발의 총알은 괴물을 휴지조각처럼 찢어 몸통을 둘로 잘라 놓았다. 마지막 총성이 텅 빈 기지 내에 이리저리 울려 퍼졌고, 예닐곱 번이나 메아리가 들린 끝에 마침내 침묵이 찾아왔다.

찬의 팔에서 흘러나온 피가 왼쪽 손가락 끝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어깨 살점이 너덜너덜했다. 끔찍한 독이 몸 속에 흘러드는 것처럼 상처가 따끔거렸다. 그는 탄약이 떨어져 숫자 '00'이 깜빡거리는 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몸을 돌려, 세 번째 차고를 지나 외벽을 찾기 시작했다.

외벽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12 미터 높이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대한 외벽, 그 꼭대기에는 한때 포탑이 설치됐던 자리가 있었다. 지금은 텅 빈 구멍에서 뿜어 나온 전선 가닥만이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었다.

찬은 잠시 멈춰 서서 강화복 상의 짐쇠를 풀어 바닥에 내던졌다. 상단이 뒤틀리고 찌그러져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찬의 목을 아프게 찔렀기 때문이었다. 소총과 강화복이 없으니 발가벗은 느낌이었지만,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는 남쪽을 향한 걸음을 재촉했다.

약 90 미터쯤 전진한 후, 그는 다시 멈췄다. 외벽에 커다란 트럭 크기의 두 배 정도 되는 구멍이 나 있었다. 가장자리의 강철은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 녹아든 모습이었으며, 바닥에는 그렇게 녹은 강철의 잔해가 굳어 있었다. 소이탄에 파괴된 흔적 같았지만, 그렇게 큰 탄환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생존 본능이 계속해서 움직이라고 비명을 질러대는 것 같았다. 저 멀리에 유령처럼 서 있는 탑이 보였다. 하지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는 불안한 듯 웃었지만,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겁이 날 뿐이었다.

탑을 향해 절반쯤 다가갔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멀리서 무언가 벽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기이할 정도로 빨랐다.

날개가 부러진 저글링이 그를 쫓아오고 있었다.

찬은 달리기 시작했다. 두 발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두들겼다. 탑에 도착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글링이 덮쳐오기 전까지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고,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따위를 생각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상하게 땀이 흘렀다. 날은 춥고, 몸은 얼어붙고, 피가 흘렀지만... 찬의 인생 중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다. 땀은 땀과 피로 흠뻑 젖었고, 폐는 차가운 공기를 힘껏 들이마신 탓에,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탑이 나타났다. 하늘을 향해 거칠게 뻗은 매끈한 강철의 창이었다.

저글링에게 붙잡히기 전에 승강기에 다다른 찬은 커다란 노란색 버튼을 힘차게 내리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버튼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내리치면서도, 승강기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시설에는 현재 보조 동력만 가동되고 있었고, 작동하는 건 생명 유지 설비와 긴급 조명뿐이었다. 찬은 지난 몇 주 동안 병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긴박한 상황 때문에 잠시 잊어버렸었다.

이제 달려오는 저글링의 새된 비명이 들렸다. 실제 저글링의 모습보다 그 소리가 더 공포스러웠다. 저글링의 쇠를 굽는 듯한 비명은 바람을 따라 점차 높아졌고, 찬에게 접근함에 따라 소리는 더욱 크고 날카로워졌다. 결국에는 그의 눈앞까지 다가와 귓가에서 울릴 것이다. 그 소리에 찬은 미쳐버리고... 저글링의 턱이 찬의 목을 덮칠 것이다.

정비용 사다리가 있었다. 탑 반대쪽에는 꼭대기까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금속 발판이 줄지어 박혀 있었다. 찬은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사다리를 향해 달렸다. 한 손은 앞으로, 손이 미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손잡이를 향해 뻗고 살기 위해 뛰었다.

찬이 사다리를 1 미터 정도 올라갔을 때, 저글링의 발톱이 그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저글링은 크기에 비해 놀랍도록 힘이 강했다. 찬이 그 발톱을 떨쳐내려고 버둥거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닳처럼 뺏속까지 파고들었다. 다른 발로 저글링을 차버리려고도 해봤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저글링의 울음소리는 분노에서 승리로 바뀌어 갔다.

저글링이 찬의 다리를 할퀴었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괴물의 칼날 같은 앞발이 앞뒤로 움직이며 탑 아래쪽 여기저기에 피를 흘뿌렸다. 찬은 이를 악물고 비명을 지르며, 있는 힘을 다해 사다리를 올라갔다. 한쪽 무릎이 부서지는 느낌이 났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저글링이 다시 찬을 힘껏 잡아당겨 차가운 금속 탑에 내리쳤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칠게 피어오르는 고통 속에서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왔다.

쇠뿔 발사기다.

찬은 떨리는 손을 아래로 뻗어 보조 무기를 꺼냈다. 아래를 향해 겨누는 C-7 쇠뿔 발사기가 걸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그는 방아쇠를 비틀어 당겼다.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를 무시하며 방아쇠를 당기고 또 당겼다. 그 소리가 찬의 머리 속을 두들겼고, 그는 미칠 것만 같은 느낌을 무시하고 계속 방아쇠를 당겼다. 결국 빈 총이 딸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찬은 눈을 뜨고 아래를 바라봤다. 쇠뿔이 저글링을 얼어붙은 바닥에 못박았다. 괴물은 온통 너털너털해진 몸으로 꿈틀댔지만,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찬은 사다리에서 내려왔고, 권총을 반대로 들어 손잡이로 괴물의 머리가 부서질 때까지 후려했다. 그리고 다시 세찬 바람을 뚫고 18 미터 높이의 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탑 내부는 따뜻했다. 찬이 탑 상층에 도착했을 때, 전력 가동되는 두 개의 증기 가열로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찬이 탑으로 들어설 때 통과한 문은 누군가 강제로 연 듯한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그 유령이 이곳에 들어올 때 망가진 것 같았다. 좋은 징조였다. 따스한 온기와 더불어 이 사실을 확인한 찬은 꽤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다.

전망대에 오른 찬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다. 거대한 유리강철 벽면을 통해 주위의 광경이 모두 시야에 들어왔다. 하얀 달 두 개가 동쪽에 낮게 걸려서 황폐한 대지를 밝혔다. 아름답고 황량하면서도 쓸쓸한 풍경이었다.

찬의 눈에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들어왔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피와 오물로 덮여 있었다. 어깨는 흉하게 부풀어 오르고, 다리의 상처는 그보다 더 심했다. 개릭이 아직도 그를 체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창문 끝에는 인간 형상이 서 있었다. 절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그는 고개를 숙여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유령이었다.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선 모습에, 찬은 그가 죽은 건 아닌지 궁금했다.

유령의 머리가 움직였다. 그는 몸을 돌려 찬을 가늠하기라도 하는 듯 똑바로 쳐다봤다. 찬은 유령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가면 속에서는 마치 로봇 같은 눈이 공허하게 빛났다. 으스스한 모습이었다.

유령의 머리가 다시 달빛이 비추는 바깥을 향해 천천히 돌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이봐." 찬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다. "이봐! 어떻게 된 거야? 왜 교신을 끊었어?"

유령은 꿈쩍 않고 서서 팔짱을 낀 채 어둠 속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찬은 30 초 정도 기다린 후, 용기를 내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 벙커 안에서 썩고 있기도 지켜워." 이번에는 조금 더 당당하게 말했다. 밖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찬의 공포는 빠르게 사라지고, 대신 분노가 자리잡았다.

"이제 가자고. 구조선을 불러. 군단은..."

멀리서 무언가가 찬의 눈에 들어왔다.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는 유리강철 벽면을 향해 두 걸음 다가갔다. 아래쪽, 시설의 외벽 너머 저 멀리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린 어..."

찬의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저 멀리서 무언가 움직였다. 무언가 휘돌며 무리를 이뤘다.

"저그 군단이다!" 깜짝 놀란 찬이 소리쳤다. "저기야!"

외벽에서 꽤 떨어진 곳에 저그가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 모여 있었다. 아직 이쪽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흥분한 채 웅웅대는 모습이 찬에게 보였다. 저글링 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거대한 벌레들이 우글거렸다. 하늘 높이 뮤탈리스크가 날개를 펼럭이면서 느긋하게 선회했다.

유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찬은 흥분한 채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저기라고! 공습을 요청해! 지금 핵폭탄으로 요격하면, 모두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어!"

으스스하게, 마치 기계 같은 말투로 유령이 단 두 마디를 내뱉었다.

"이미 했다."

찬은 눈을 감았다. 달콤한 안도감이 몰려왔다. 곧 공습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모두들 집에 갈 수 있어. 그는 심호흡을 하며 얼굴의 땀을 닦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이미 저 먼 곳에서 수송선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이제 아무 문제도 없었다. 바닥의 붉은 점 하나만 빼면.

유령의 손이 머리 쪽을 향하더니 보안경이 덜컥 열렸다. 그 뒤의 눈은 흰 색으로 번들거렸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비틀거리며, 유령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을 때, 유령의 척추에서 뻗어 나온 녹색 촉수가 목과 머리를 움켜잡고 있는 게 보였다. 지금 유령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고 있는 신경 기생충의 촉수였다.

"이미 했다." 유령이 다시 말했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대신, 입 주위의 근육이 움직이며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곡선을 그렸다. 미소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존재가 만들어 낸 역겹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유령이 뒷걸음질쳐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찬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은폐 장치가 작동하면서 보인 으스스한 번쩍임뿐이었다.

찬의 입이 딱 벌어졌다. 온 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바닥의 붉은 점은 계속해서 깜빡였고,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는 점점 커졌다.